



기정원,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관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상균 인재경영 실장(오른쪽)이 인증서를 받고 있다. /기정원



SK에코플랜트, 자원순환 기부 프로그램 바자회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 온 자원순환 기부 프로그램 'CE100'과 연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인컵 사용의 날, 사랑의 폐배터리 캠페인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노사합동 클리어 안전문화 결의대회

대우건설은 17일 전 현장 안전 점검 완료 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클리어(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 안전 동행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가운데 왼쪽)과 심상철 대우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BGF리테일 '독도사랑 원정대', 독도 후원금 전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임직원과 가맹점주로 구성된 'CU 독도사랑 원정대'가 독도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20여 명의 CU 독도사랑 원정대는 지난 15일 발대식을 가진 뒤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입도했다. 이들은 독도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사랑운동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독도 홍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GF리테일



동화약품, 오는 29일까지 '여름생색전' 열어

동화약품은 오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제9회 여름생색전(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생색전(展)은 지난 2011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가송 예술상' 본선 진출 작가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동화약품의 가송 예술상은 고려 시대부터 유래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인 접선(摺扇, 접는 부채)을 주제로 한 공모전이다. /동화약품

현대모비스, 차량용품 체험·전시로 고객 신뢰 높인다

특별 전시회 '미트 모비스' 열어 차량용품 전 개발과정 공개도

현대모비스가 본인만의 색다른 카라이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차량용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연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디자인, 성능 평가, 완성품까지 개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실제 차량에 장착된 형태의 용품 전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19~21일 서울 강남에 있는 차량 특화 전시 카페 애레보에서 차량용품을 체험하고 개발 스토리를 확인하는 전시회 '미트 모비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용품을 장착한



현대모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차량 특화 전시 카페 'EREVO'에서 차량용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차량 전시는 물론 용품 개발 과정을 확인하는 갤러리 공간, 고객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 공간 등을 마련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15개 품목을 실

강조하기 위해 방문 고객들에게 차량용품 개발 스토리를 소개한다. 또 방문 고객들은 용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고객의 제안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받아 이를 전시 공간에 공유하고 향후 신제품 개발 과정에 활용한다.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차량용품의 특성상 고객의 필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고객이다양한 인기 차량용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등 고객 직접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상품 출시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진공,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구축

금융기관 최초로 우리은행과 맞손 5년간 75억 출연해 기업 부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은행과 금융기관 최초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년간 75억 원을 출연해 공제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는 우리은행을 급여 계좌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부담금 24만 원 중 일부를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3년형 1224만 원, 4년형 1632만 원, 5년형 2040만 원으로 별도의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공제는 요건에 따라 기본형부터 심화형, 공동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우리은행이 6개월간 동일금액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심화형은 기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우리은행 배연수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본형 가입자 중 수출입거래 실적을 충족하거나 공급망결제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형은 심화형 상품 가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도 기업부담금을 매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해 양 기관으로부터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형은 2025년 가입자 중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LG U+, 추석 맞아 로밍 프로모션 진행

기내 와이파이 무료 제공 등 혜택

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을 위해 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내 와이파이 무료 제공 ▲해외 음성 통화 최대 40분 ▲데이터 2배 혜택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 '로밍패스 13GB(5만9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대한항공 장거리 국제선(8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기내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또 이달 30일까지 '로밍패스 8GB(4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플러스닷컴에서 혜택을 신청한

고객 전원은 해외에서 최대 40분간 무료 음성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통화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83개국에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밍패스 8GB' 이상가입 고객에게는 데이터가 2배 제공된다. 고객은 해외 현지에서 지도 검색, 메신저, 동영상 스트리밍 등 데이터 사용이 많은 서비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선보인 '로밍패스 나눠쓰기' 서비스가 출시 14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42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이용할 경우 최대 65%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한미사이언스, 실종 예방 메시지 전달

서울강동경찰서와 '맞손'

한미사이언스와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텐텐맛 멀티비타민' 제품 상단에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전국에 유통한다.

안전드림앱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 예방 시스템으로,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의 신속한 신원 확인에 활용된다. 보호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자녀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김병주 서울강동경찰서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문 등



'텐텐맛 멀티비타민X경찰청'. /한미사이언스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님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한미그룹 대표 제품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속 협력하겠다"며 "단 한 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온, 유럽대표 신설... 글로벌 경쟁력 ↑

토마스 엘러 유럽대표 선임

SK온이 유럽 시장 영업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세일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사진)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 엘러 부사장은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년간 콘티넨탈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세일즈 총괄을 맡아온 자동차 업계 영업 전문가다.

새롭게 신설된 유럽대표직을 맡은 엘러 부사장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밀집한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내 신규 수주 확대와 고객 관리 등 현지 영업을 총괄

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지 고객사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럽 시장 수요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현재 형가리 코마롬과 이반차에서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신규 수주를 확대해 형가리 공장의 기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유럽 지역에서 고객 니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유럽 완성차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수주 기회를 탐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 헬스투데이 △대표이사 김미경(발행인 겸임)

◆ 휴렛팩커드 △한국HPE 네트워킹 부문 총괄 채기병

부음

▲ 손정숙씨 별세, 최상혁(포항파리글라 이딩협회장)씨 모친상=16일 포항시민장례식장 VIP실,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장지 포항시립화장장, 054-253-4444